

‘합의 빌미로 접근’ ...스토킹처벌법 사각 여전

관련 법 시행 후 광주 800건 발생
지난해 662건...구속 송치 7명 뿐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목소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 광주지역에서 800여건에 달하는 스톱킹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관련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피해 제

를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톱킹 범죄 피해 신고는 1,0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21일 이후로 관련 신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스톱킹 범죄 신고는 각각 79건, 41건이었지만,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2021년 10월 21일-2021년 12월 31일) 140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662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스톱킹 범죄 입건 건수는 235건으로,

이중 피의자 구속 송치는 7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 계기로 스톱킹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스톱킹범죄로 입건된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 피해자가 국선번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보내 처벌을 받게됐다.

또, 이혼한 아내에게 정체를 숨기고 ‘결혼하자’며 스톱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D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로 하는 등 스톱킹 행위를 했다. 이처럼 스톱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협박과 보복 등 합의 강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변보호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톱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피의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고속버스 장애인 리프트 도입 촉구
광주장애인철페연대가 19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버스에 장애인용 리프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상 시인의 난해시, 물리학으로 또 풀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 규명
천재 시인 이상(1910-1937)의 연작시 ‘건축 무한육면각체’의 작품 중 하나인 난해시 ‘진단 0:1’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이 이상문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머세드(UC 머세드) 물리학 박사과정생 오상현씨(지스트 졸업생, 물리전공)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상의 시 ‘진단 0:1’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공간에 관한 시업을 규명·해설했다. 연구팀은 숫자표의 숫자를 시공간 좌표로 보고, ‘진단 0:1’이란 마치 종이를 말아서 쌓이

이어진 원통형으로 만들듯 시공간의 경계를 연결하고 반복시키는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진단 0:1’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하는 시이며, 시공간의 연결과 반복이라는 주제는 반복, 무한, 공포, 권태, 자아분열 등 이상 문학에 등장하는 다른 모티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교육청, 미래 변화 대비 유아교육 추진

놀이중심 교육 강화·인프라 구축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전남유아교육 2023’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올해 유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전남 유아교육은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전남유아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변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먼저 유아의 삶에 기반한 놀이중심 교육 내실화를 기한다. 이를 위해 1학급 유치원의 교육계획 공동 수립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전남의 대부분인 작은유치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유·초(유치원-초등학교), 유·보(유치원-어린이집) 이음교육을 활성화해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기반 구축도

확대한다. 행복안심유치원(30개원)과 미래형유치원(20개원)을 확대 운영해 안전한 놀이공간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구축해 유아들에게 좋은 삶과 성장을 지원한다. 유아 시기의 독서교육, 기후위기에 대응 생태환경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유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꾀한다. 놀이와 심 중심의 방과후과정과 아침, 저녁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해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금 경감 및 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은 “변화의 시기, 전남교육 대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전남의 유아들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 설 연휴 눈·비 ‘강추위’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은 기온이 푹 떨어지면서 눈·비가 내릴 전망이다. 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귀성길에 시작되는 20-21일 흐린 날씨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설 당일인 22일은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남해안 지역은 비가, 내륙 지역은 눈이 올 가능성이 높지만 적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은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 발효도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항공, 해상 교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은 운항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